



## 기생충박멸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8.15광복 30주년을 맞으면서—

회장 김연주

일제침략의 마수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지도 이번 8.15 광복절로 어언 30주년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동안 북괴집단은 6.25남침으로 수백만동포의 생명을 잃게 하였고 국토를 폐허화한 죄과를 뉘우치기는 커녕, 이제 또 다시 평화통일이라는 허울좋은 위장공세로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있는것입니다. 8.15 광복 3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의 총력안보를 다지는 각오가 더욱 더 공고하여져있음을 경하하여 마지 않는바입니다.

지나온 30년동안 우리국민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훌륭하게 그리고 독자적으로 살아갈수있는 국민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과거10년간에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비약하여 우리나라의 공산품은 이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득면에서도 중진국대열에서 멀지않은 장래에 선진국 대열로 들어설수있는 태세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방과 우리의 경제건설을 우리의 힘으로 완수하여야 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들 모두가 제각기 맡은바 직책에 충실하여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여 우리국민의 기생충 퇴치에 더욱더 정진하여 국민 보건 증진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민체력 증진, 경제건설, 국방력강화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국가 안보에 기여 하여야 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모든면에서 북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우리 5천만민족의 영원인 평화적 민주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